

우성타이어

시무식 거행

대망의 '91년 신미년을 맞이하여 한해의 장을 여는 시무식이 지난 1월 3일 본사 및 각 공장에서 거행되었다.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시무식에서 최주호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성실의 터전 위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것과 혼탁한 현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항상 가난한 마음을 지니고 새해를 맞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승진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91년의 그룹비전과 경영방침을 제시한 후 그룹의 제2도약을 위한 방향과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신미년 새해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우수 모범사원 및 우수부서 표창식도 있었는데, 마산지점 김영진 사위가 회장 표창을, 타이어 영업관리부가 '90년도 모범부서'로 그 영광을 차지했다.

OJT 교육 실시

(주)우성산업은 증견사원들의 Leader 양성교육을 각 사업본부별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리급 및 과장급을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능률협회 및 한국공업표준협회 전문위원인 신재우 강사를 초빙하여 3차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지점 경리요원 교육 실시

'90년도 경리결산업무에 즈음하여 지점 여직원들에 대한 '90년도 경리결산업무 처리교육을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전국 각 지점 경리담당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경리회계 처리의 전표발생, 장부기장방법, 결산처리까지 일괄적인 업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직원들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마친 뒤 다과회를 가짐으로써 더욱 돈독한 우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불우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

(주)우성산업에서는 전국의 불우 어린이를 돕기 위하여 MBC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우성그룹 전 임직원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 어린이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모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성금 모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불우한 어린이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한 성금을 MBC측에 전달하였다.

우성산업 산악회

소백산 등정

(주)우성산업 산악회는 1월 26~27일(무박 2일) 양일간에 걸쳐 소백산맥의 주봉이자 우리나라 12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소백산(충북 단양 소재) 등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겨울 등정은 설화가 만발한 소백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끽하고, 소백산의 최고봉인 비로봉(해발 1,439m)을 등정할 계획인데, 26일 저녁 9시에 출발하여 즉령검문소를 거쳐 회방사, 천문대, 연화봉을 통과하여 최고봉인 비로봉 정상에 도착할 예정이며, 돌아올 때는 비호사 삼각동으로 하산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 등반은 익숙하지 못한 신입 회원들의 기대가 커 뜻깊은 산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

'90년 하반기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이 지난해 12월 10일 본사 교육장에서 열렸다.

동양나이론 연수원에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의 1단계 교육과 본사 교육장에서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2단계 교육의 개강식도 겸한 이 행사에서 신입사원들은 사령장을 받아 한타인의 일원이 되었다.

홍건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많은 업종과 수많은 회사를 제쳐놓고 우리 한국타이어를 생활의 터전이며 자아실현의 장으로 선택한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제조업이 튼튼하게 자리잡아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충실해지고 개인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제조업에 동참한 여러분은 항상 이와 같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2천년대의 창업을 준비하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사 QC분임조 발표대회

제22회 현장부문 전사 QC분임조 발표대회가 남효승 전무,

김중훈 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3일 대전공장 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각공장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9개 모범분임조가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팀 모두가 활동내용이 우수하고 개선효과도 상당하여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벨트 오프센타 불량감소'란 주제를 발표한 대전공장 TBR 제조과의 피스톤 분임조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영등포공장 설비보전과 태양분임조와 인천공장 생산과 자석분임조, 그리고 특별상은 대전공장 가류과 씨앗분임조가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이번 전사 QC분임조 발표대회에 참가한 분임조에게는 2박 3일간의 국내관광을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1등급 인정 회사로 선정

지난해 12월 4일 우리 회사는 기아자동차의 심사에서 품질관리 1등급 인정회사로 선정되어 인정패를 수여받았다.

이는 기아자동차가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품질보증체제의 적정성, 개발품질, 양산제품의 품질 등 전반적으로 협력업체의 품질관리활동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6월

기아자동차에 납품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대전공장이 품질관리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를 받은 결과 품질관리 1등급 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기아자동차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주보증을 하여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완벽한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제품만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마음 한가족운동 실천대회

영등포공장 B조 주임, 반장 모임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영등포 소재 서울회관에서 부부동반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족 한마음이 되기 위한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날 실천대회에서 두 모임을 대표해서 대회를 낭독한 우증을 주임은 우리 모임이 발전하는 회사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한 다면서 남편들이 회사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쓰는 부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실천대회 이후 더욱더 단합된 힘으로 한마음 한가족이 되어 회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말했다.

금호타이어

미국 AKRON에 기술 연구소 설립

(주)금호에서는 지난해 11월, 미국 Ohio주 Akron시에 국내 타이어 메이커중 최초로 해외기술연구소(KUMHO TECHNICAL CENTER)를 설립했다.

이는 기술자립기반의 조기구축과 시장수요에 부응한 최신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고,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연구초기단계에서부터 입수, 활용함으로써 기술동향에 신속히 대처할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성남영업소 개점

'90년 하반기부터 개점을 준비해오던 당사 성남영업소가 지난 12월 4일 성남시 수성구 수진2동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6평 규모의 사무실과 창고 9평, 16평 남짓한 서비스를 갖추고 임광남 소장을 필두로 첫걸음을 시작한 성남영업소는 성남시 일원의 타이어시장을 겨냥하여 '성장하는 금호'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타이어 매출신장 및 유통망 보강을

위한 일선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기업문화개발을 위한 「사원의식구조」 조사

지난해 12월 12일, 당사 전 사업장에서는 각 부문별 임의 추출된 1,000명을 대상으로 「사원의식구조」와 「기업이미지」 조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N.W.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2천년대 경영 Vision 실현과 일류 「금호 기업문화」 창조를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금호인들의 행동양식과 현재의 사기(MORALE)를 파악하고, 직장생활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측정함으로써 조직내의 리더쉽 구조, 의사소통을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외부 여론선도층에 대하여 기업 이미지와 제품신뢰도 등의 조사를 통해 올바른 「금호 기업문화」 창달과 선진 경영전략 수행을 위한 경영이념 등 전사적 공유의식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월중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기업문화 개발목표를 확정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개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호 J.I.T.전문가 양성, 해외연수교육

새물결 운동의 성공적인 수행과 J.I.T.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금호 J.I.T. 전문가 양성 교육이 지난해 12월 4일부터 5박 6일동안 일본에서 실시되었다.

각 운동지부별로 생산, 관리 부문 대상자를 선정하여 곡성 제조부 김종주 차장을 단장으로 총 16명이 참가하여 일본 동경, 나고야 등에서 J.I.T. 생산 시스템의 이론과 실제, STEP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TOYOTA 자동차공장 등 우수 J.I.T. 추진업체를 방문하여 이론과 실체를 경험했다.

‘세계속의 금호’책지발행

(주)금호 기획실에서는 지난 1월 7일, ‘세계속의 금호-타이어산업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교육용 소책자를 발간하여 해외지사 및 지점을 포함한 전 부서에 배포했다.

2천년대의 세계속의 금호 Vision을 전사원에게 고취하고 N.W.운동의 기본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자동차산업의 동향과 전망에서부터 타이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90년대 타이어 산업과 금호의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Goodyear社, 韓國工場 設立計劃 取消

Goodyear社는 한국의 청주 부근에 승용차 및 輕트럭용 래디알 타이어 생산공장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지난 3년동안 工場敷地買入에 애쓰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同計劃을 취소하였다.

同社の 大변인에 의하면 同社는 청주 부지에 다른 사업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타이어産業 專門家들의 얘기로는 同社가 環太平洋地域의 다른 나라 타이어會社와 合作으로 타이어공장을 지을 것 같다고 하였다.

同社는 한국에서는 “복잡하고 성가신 土地買入節次”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바꾼 것이라 하였다. 同社는 1988년 한국 정부로부터 工場設置許可를 받아 대규모의 工場敷地買入을 추진하였다.

同事業內容을 보면 1억 1천만달러를 투입하여 6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간 320만개의 타이어 生産施設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75%를 생산하여 東南亞, 특히 日本市場에 팔고 나머지는 한국내 자동차공장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타이어産業 專門家인 Harry Millis의 얘기로는 Goodyear社가 環太平洋地域에서 타이어

생산의 매력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아마도 그 地域은 이미 同社가 진출해 있는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現地業體와 合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Goodyear社는 投資持分을 49% 이하로 해서는 合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Goodyear社가 직접 경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타이어 原價에서 運賃比重이 높은 데다 環太平洋地域의 타이어市場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同社는 現地生産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Millis는 Goodyear社가 現地生産을 원하기는 하나 그들이 경영할 수 없는 조건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처음에 한국의 타이어 메이커들은 Goodyear社의 진출을 반대하였다. 원래 Goodyear社는 (株)宇成産業과 홍아타이어(株)와의 合作을 검토하였었다. 그러나, 同社들과의 협상에서 실패하였다. 나중에 宇成産業은 미쉐린과 合作하여 경남 양산에 래디알 타이어 新工場을 가동하였다.

(Rubber & Plastics News, 1991. 1. 21)

隔月刊 **타이어고무** 1~2月號

發行日字 1991年 2月 1日

登錄日字 1973年 7月 31日

登錄番號 (서)바-4 호

發行人 洪 健 憲
編輯人 金 址 柄
印刷人 宋 秉 燁

發行所 大韓타이어工業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三成洞 159

☎ 135-729(貿易會館 1910號)

電話 (551) 1907~9 FAX (551) - 1910

印刷所 文善社印刷社